

동종업계 최초로 무재해 10배 금자탑을 쌓은 성신양회공업(주) 안양공장



▲ 김영주 공장장

지난 30년 동안 국가기간 산업으로 우리 나라 근대화에 한 축을 형성한 기업으로 “새롭게, 힘차게, 충실하게”라는 사훈아래 건실한 기업으로 재 탄생한 성신양회공업(주)(박찬대표)는 항상 새로운 사고와 끊임없는 활력으로 회사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성신양회공업(주)는 시멘트 사업부와 레미콘 사업부인 있는데 동종업계에서조차도 최초로 무재해 10배 목표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린 곳이 있어 찾았다. 레미콘 사업부의 안양공장(김영주 공장장)이 92년 1월 무재해를 개시하고 금년도에 드디어 꿈의 무재해 10배를 달성하였다.

레미콘의 품질은 강도 불량율이 0%이고, 고강도생산을 하고 있으며, 고속철도공단 광명역사현장과 안양수리산터널공사 등 중요한 공정에 단독 납품할 정도의 고품질을 자랑하고 있는 성신양회공업(주) 안양공장의 무재해 10배 달성에 김영주 공장장은 “경영주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직원들도 잘해 주어서 달성한 쾌거입니다.”라고 말한다.

처음 무재해 1배 달성시 김영주 공장장은 담당

대리였고, 안전에 대해 무지였는데, 대한산업안전협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회상한다. 직원들의 무재해 달성을 해야한다는 의지는 1배, 2배 달성시는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5배를 달성하면서 기필코 10배를 달성해야 한다는 자율적인 의지가 오늘의 목표까지 도달하게 된 원동력이다.

이제는 15배 달성을 위해 또 시작한 성신양회공업(주) 안양공장은 무난한 목표달성을 기원한다.

그럼 안양공장의 주요 안전관리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안전 및 청정활동 전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작업환경 개선 및 능률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청정활동과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이면 안전, 환경, 시설물에 대해 김



▲ 무재해 10배 목표달성 기념

영주 공장장과 함께 생산반장, 방화관리자, 환경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로 점검팀을 구성하여 1시간 정도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중에 지적된 사항은 각 담당부서별로 분석하여 개선조치 함으로써 한치의 잠재위험요소가 현장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분기별 현장 순회점검

서울 인근 성신양회공업(주)의 레미콘 사업부 문끼리 서로 순회하며 분기별 1회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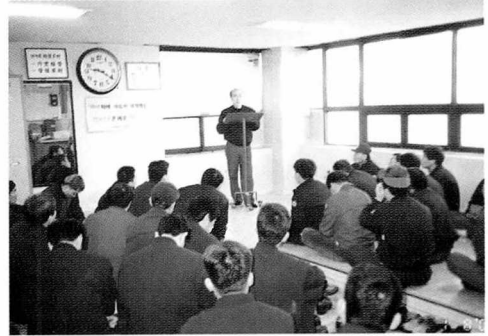
점검일자를 알리지 않고 점검하는 공장에서 불시에 방문하는 점검방법으로 항상 준비되지 않은 공장은 자체 순회점검 결과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다.

점검은 정리·정돈, 시설불완전 개소, 근로자의 안전의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하는데, 각 항목당 점수를 부여하고, 분기별 결산하여 우수한 공장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는 자체 점검 제도로 각 공장마다 서로 우승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자체에서 계속해서 우수하기란 참으로 힘들다고 한다. 그래도 2/4분기에서는 안양공장이 우승을 차지하여 무재해 10배 목표를 달성한 공장의 면목을 세웠다고 한다.

교통사고예방에 주력

레미콘 사업부문은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운전기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다.

운전은 방어운전이 최고이며, 준법정신이 없으면 무사고 운전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안양



▲ 근로자 안전교육



▲ 안전 및 청정활동

공장에서는 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소양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며, 교육 강사도 직원 중 경력이 오래된 직원을 선정하여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운전자가 건설현장에 도착하였을 경우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는 곧 성신양회공업(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으로 무재해 20배까지 그 목표를 상향 달성하기 기원한다.

〈취재: 최종덕〉